

공공기관 인권경영 컨설팅

전북도, 도내 15개 기관 인권경영 이해·기관별 상황 맞는 진단·점검

전북도는 도내 15개 공기업 및 출연 기관을 대상으로 2021 인권경영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도내 공공기관의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를 넓히고, 기관별 수준에 맞는 진단을 통해 인권경영을 원활하게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인권경영'이란 국가의 인권보호 의무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국가와 기업의 상호적 구제에 대한 접근을 실천하는 경영(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 지침, 2011)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최근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국내 많은 기업들도 인권경영에 관심을

가 기울이고,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컨설팅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8년 마련한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전체 강연과 기관별 인권경영 추진상황에 맞는 세부적인 진단 및 점검을 통한 컨설팅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도내 15개 공공기관은 1단계인 인권경영체계(담당 부서, 제도 마련,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등)는 모두 구축됐으며, 2단계 인권영향평가 단계가 대부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지난 7월 컨설팅 사전 수요조사 시 기준에 설정된 지표 점검 및 보완, 3단계 이행절차 이해, 인권경영 운

영 관련 자문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강의 및 질의응답 방식에 기관별 추진상황에 맞는 개별 컨설팅을 추가 진행, 실효성을 높였다. 영경형 도 인권담당관은 "공공기관은 사기업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및 존중의무가 요구된다"며 "인권경영 구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인권 존중문화 확산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 2018년 15개 공기업·출연기관과 인권경영 상호협력 및 체계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 2019년부터 매해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박지원 국정원장, 사찰 종식 선언 및 과거 불법 사찰 대국민 사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개인과 단체에 대한 국정원의 사찰 종식 선언 및 과거 불법 사찰에 대해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4일 국회를 통과한 국가정보기관 불법 사찰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 따른 것이다.

도내 생산 계란 집중검사 결과 '안전' 확인

도 동물위생시험소, 살충제·항생제·살모넬라균 등 모두 적합 판정

전북도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내 계란 생산 농가를 대상으로 지난 6월 27일부터 8월 27일까지 실시한 하절기 계란 집중검사 결과 안전이 확인됐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동물위생시험소는 계란에 잔류돼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살충제와 항생제의 잔류 여부를 비롯, 식중독 원인인 살모넬라균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집중검사를 지난 3개월간 실시했다. 도는 계란 생산 대상 농가 중 휴업 및 폐업한 농가나 아직 계란을 생산하지 않는 일부 농가를 제외한

95농가를 직접 방문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검사항목은 피프로닐, 비펜트린을 포함한 살충제 총 34종과, 계란에서 검출이 제한된 엔로플록사신과 같은 항생제 총 32종을 검사해 모두 적합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란에 의한 식중독 발생 원인으로 최근까지 거론되고 있는 살모넬라균의 오염 여부도 확인한 바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결과는 도내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한 동물위생시험소의 꾸준한 안전관리와 농가의 자발적인 환

경개선을 통해 이룬 성과물이라는 데 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차후 검사가 실시되지 못한 계란을 비롯해 마트 등과 같은 판매시설에서 유통 중에 있는 계란을 대상으로 올해 연말까지 지속적인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장재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앞으로도 도민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안전성 검사를 거친 계란이 생산·유통 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적극 힘을 것"이라며 "생산농가의 더욱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2022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수요조사

전북도, 시·군·생산자단체 대상 15개 분야 지원

전북도가 오는 9월 농식품부의 2022년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공모에 대비 시·군 및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수요를 사전 조사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식량·원예·특용작물 등의 종자, 종묘 증식·보급을 위한 유리온실, 조직배양실, 저온저장고 등 시설과 파종, 동력운반차, 품질관리 기계 등 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해당

하는 농업인과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생산자단체이다. 단, 농업인의 경우는 농업경영체로 '종자산업법 제37조'에 따른 종자업 등록과 작물명, 계약량, 단가 등 기본 사항이 포함된 국내 채종(종자)업체와 계약 체결조건이며, 육묘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분야는 기존 약용작물 종자, 고구마 종순 등 13개 분야에서, 2022년에는 차나무, 뽕나무가 신규 추가돼 15개 분야로 확대된다. 종사업비도 내년에는 최소 3억원~

최대 50억원으로 상향조정되며, 지원 조건은 지자체는 국고 50%, 지방비 50%이고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는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내년 부터 변경되는 지침의 내용을 숙지하고 소재지 시·군과 사전 협의 후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정성이 도 농지재정지원과장은 "전북은 김제의 민간육종연구단지과 농진청 등 종자 연구·개발 지원이 가능한 국가기관이 있다"며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통해 전북도 종자산업의 선순환 구조 완성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최고 수산 경영자 과정 교육 진행

전북도가 도내 수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최고 수산 경영자 과정'(패류 분야)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오는 9월 7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주 동안 군산대학교 해양과학대학에서 진행된다. '최고 수산경영자 과정'은 국내 외 어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인 대처와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전북지역은 현재까지 24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패류 분야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 커리큘럼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도내 패류 관련 경영자가 우선순위에나, 도내 수산업 관련 경영자 및 종사자인 경우에는 잔여 모집 인원에 한해 누구든지 지원이 가능하다. 오는 9월 3일 오후 6시까지 군산대 해양과학대학 행정실(문의 469-1752)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동기, 참여 의지, 양식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전체 교육 시간은 104시간으로, 워크숍 80시간 및 현장 교육 24시간으로 구성됐다. /유호상 기자


주요 교과과정은 패류 인공종자 생산 기술 동향, 수산 정책, 성공사례 등 필요한 지식을 얻는 한편, 현장 교육을 통하여 타 시·도 등의 실제 사례도 참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밖에 부인 토의 등을 통해 동종 업계에 종사하는 교육생들의 친목 도모 및 정보교류 활성화로 향후 관련 경영인들간의 네트워크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전북도는 교육생에 교육비 90%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교육 이수자에게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 및 전북도 해양수산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전북도, 도내 응급의료기관 20개소 평가 실시

전북도가 도내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에 나섰다. 이번 평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에 근거, 응급의료기관 중별에 따른 법정 시설·인력·장비 기준과 효과성, 안정성, 기능성 등의 영역별 평가 지표를 점검한다. 도는 오는 9월 16일까지 도내 응급의료기관 20개소를 대상으로 법정 기준, 응급의료서비스 대응능력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도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업무의 과중과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부터 지표 간소화와 서면 평가로 전환해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지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지난 2일 전북대병원을 시작으로 8월 현재 8개 기관(권역센터 2, 지역센터 4, 지역기관 2)의 평가가 원활히 이뤄졌으며, 남은 기관들은 오는 9월 16일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평가를 통해 응급의료기관 A, B, C등급으로 결과가 정해지며, 평가 등급별, 응급의료기관 종별, 내원 환자 수 등을 기준으로 총점 미달인 C등급을 제외하고(응급의료취약지역 예외) 매년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보조금을 차등 지원받게 된다. 이정우 도 보건 의료과장은 "도민의 건강권 확보와 안전한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질적 수준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과 소통으로 2019년 85%였던 평가 충족률을 2020년 100%까지 끌어올렸으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모 집	전주교육대학교·우석대·원광대 군산대·전북과학대 평생교육원	상 담
스피치 · 긴장해소 · 면접 · 웃음코칭		
스피치학의 이론과 실기의 정통기법을 전북에서 최초로 개척한 김양옥입니다. 스피치학, 면접 등 제대로 배울려면 역시 김양옥입니다. 저렴한 등록금,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을 기대합니다.		
	<p>▷ 전담교수 주요경력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주교육대학교 전담교수 전북대학 토론과 면접 담당교수 역임 스피치자격시험 감경위원장 한국스피치, 웅변협회 전북회장 전북인재교육원 및 기관, 단체 특강교수 KBS TV 아침마당, MBC TV, JT, TBN 출연 및 강의자 스피치 칼럼리스트 평생교육사 심리상담사 사회복지사 전주매일 부사장 	
< 각 지역별 모집 > < 누구나 학습가능함 >		
학교별	주요과정	지역별(자유선택)
전주교육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 긴장해소,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임실, 완주
우석대학교	스피치기법,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전주, 완주, 진안
원광대학교(익산)	스피치긴장해소(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익산, 논산, 강경
군산대학교	스피치기법퍼러더업, 스피치지도사(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군산, 서원, 부안
전북과학대학교(정읍)	스피치지도사(기초, 고급, 자격증)(야간) 스피치웃음코칭(주간)	정읍, 고창
남원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기법과 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남원, 장수, 순창
김제스피치 평생아카데미	스피치웃음코칭(야간)(웃음자격증)	김제, 부안
상담전화 : 285-6676, 231-6669, 010-7304-5665(주,야) ※ 수시 선착순 모집하여 학교별로 개강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